

獨立記念館 自初至終

金 洵

(獨立記念館 基本計劃 小委員會 委員)

• 發端

1982년 8월은 일본의 교과서 歪曲사건에 따른 극일운동과 그 여파로 벌어진 국민모금운동으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정부는 국고로 候補地 매입을 지원하고, 국민 모금으로 건물을 세우기로 하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모금의 목표액은 500억원이었다. 이 모금 운동은 전국의 어린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그런 종류로서 유례가 없는 사업이었고, 신문사 방송국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열의를 보였다. 예정된 기간동안 430억이 모금되었다. 이자수입을 합하여 500억원이 모아진 셈이었다. 이 모금의 열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국민의 일면 國家主義的인 자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기초로하여 1986년 8월 15일 완공예정으로 建立 計劃이 추진되었다.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국민적인 열기에 의해 사업주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責任感과 強迫觀念속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정치적인 Project라고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었다. 後日 우리가 이 일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무실의 대학원

재학생들중에는 왜 그런 정치적인 성격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깊이 개입해야하는지 반대의견을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단순한 獨立記念館 그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말하여 그들을 무마했다. 우리에게 아직 독립기념관같은 성격의 건물이 없지 않은가. 구대여 제5공화국의 기념이라는 등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등등이었다.

• 建立 候補地 선정

기본方針으로 서울과 대전사이에 100만평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하기로 하고 광범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Project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 도의 지사들에게 각 도별로 2개씩의 후보지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候補地 물색은 처음에 문공부에서 주관하여 4~5개월을 허송하였다. 그후 建立推進委員會에 위임되면서 2개월이 또 허비되었다. 그러던중 당시 사무처장이던 박종국씨가 후보지 선정문제는 전문가가 관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참여를 요청해왔다. 필동 「한국의 집」에 있던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20여군데의 후보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도상으로 검토한 후 3곳만 현장을 답사할 것을 제안했다. 거기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도상으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졌었으나, 1차로 답사후보지를 가려 내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먼저 사무처장과 들어서 3곳을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그 곳들은 지금 獨立記念館이 들어가 있는 부근, 상당산성주변을 비롯한 3곳이었는데 3곳이 모두가 적당하지 않았다. —어떤 곳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이거나, 또는 국면이 협소한 곳, 또는 산이 너무 못생긴 곳 등등……. 국민의 企待,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니 선택은 더욱 어려웠다. 당시 觀念속에서의 獨立記念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獨立精神, 自立意志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기본적 생각대로 산이 좋아야하고, 현실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했다. 가장 애를 먹는 문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사이를 모두 둘러보아도 그 안에 100만평이나 되는 땅이 開發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 공장이 들어서서 등 개발이 되어 있었다. 또 잘못하여 그런 곳을 선택했다가는 엄청난 補償金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산이 좋고 물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여러 곳을

해메고 다녔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다. 별다른 진전없이 2~3일을 보냈는데 그 때는 이미 시간을 허비할대로 다 허비하여 거의 매일 청와대에서는 재촉전화가 올 정도로 候補地 결정문제는 다급했다. 하여튼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칠사이에 후보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나와 박처장은 몹시도 조급했다. 어떤 때는 차가 개울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산길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밭에서 무우를 뽑아 먹기도 하는 등 고생을 겪었으나 결국 좋은 곳을 못 구하고 실의에 차서 서울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가 다니는 것은 投機 등의 문제 때문에 비밀로 해야 했는데 그때 주로 안내를 맡은 사람이 당시 충남 천원군수였는데 그가 돌아오는 차중에서 후보지를 충남으로 결정 안하고 올라가시는 것 같아 감춰둔 곳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안내한 곳이 지금의 목천면 남화리, 신계리 일대였다. 밤이 꽤 깊었지만 처음보는 순간 매우 마음에 들었다. 당시에는 수십 채의 민가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던대로였다. 특히 흑성산과 그 양 날개가 좋았다. 너무 어두워서 산꼭대기에는 못 올라가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돌아보기로 하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와서 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등 3~4권의 책을 찾아보았다. 이 책들에는 이구동성으로 목천면, 목천, 흑성산 등의 부근지명이 '좋은 땅이다' '明堂이다' 등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내려가 흑성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 頂上은 ○○ Radar 기지가 있어 길이 아주 잘 나있었다. 그 길은 6·25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담하고 印象이 좋았다. 6·25 때 만든 길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장비가 좋아 흙을 밀고, 바위를 꺼내서 뱅뱅뚫은 길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길이기 때문에 自然景觀을 최대한 살린 아주 아기자기한 길이다. 산 정상에서 보니 과연 책에서 말한대로 좋은 땅인 것이 확실했다. 박처장과 나는 아마도 이 이상의 더 좋은 땅은 없다고 확신하며 내려왔다. 곧바로 문공부에 보고가 올라가니 모두 좋아하였다. 당시 이진희장관이 그

다음날 바로 가보기로 하였다. 다음날 목천행 차중에서 나는 그 땅에 관해 대강의 설명을 하면서 風水상으로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풍수상으로 대단히 좋다는 것을 강조해서 발표를 하면, 후보지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論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내생각으로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반이상이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풍수상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관도 그날저녁 서울에 돌아와서는 무척기뻐서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할 만큼 일은 잘된 셈이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로 광복회나 독립운동
유공자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추진위원장에 안춘생
현 관장이 추대되었던 사실은 대개
알려진 대로이다. 그 이사회는
재계중진, 문공부, KBS 방송국
등의 현실적으로 일에
관여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을 텐데, 워낙 시간이 없었으므로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고, 토요일 아침에 대통령 전용헬기를 타고 흑성산 정상에 내려 다시한번 그 땅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설명하였다.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이 이상의 좋은 땅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다. 대통령도 반응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되었다. 그날 저녁 술을 한잔하고 늦게 돌아오니 신문기자들이 집에 가득하였다 候補地 선정문제가 국민전체의 관심사였으므로 기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문공부 관리들을 많이 追窮했던 모양으로 그 장소가 결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밝힐 수 없는 관리들로서는 김원이 한테 가 보라고 흘린 모양이었다. 나야 관리도 아니고 편한 입장이나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신문에 大書特筆 대통령談 “조경만 잘하면

괜찮을 듯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단 승인은 된셈이었다. 다시말하면 대통령이 싫지않다면 推進위원회가 결정을 할 사항이었으므로 공식적으로 좋다, 나쁘다 의견을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후 그 대지가 그대로 建立豫定地로 확정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후보지 결정에 내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잘된 일이고 또한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 基本計劃 小委員會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로 광복회나 독립운동 유공자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추진위원장에 안춘생 현 관장이 추대되었던 사실은 대개 알려진 대로이다. 그 이사회는 재계중진, 문공부, K. B. S. 방송국 등의 현실적으로 일에 관여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분위기는 - 국민의 반일·극일감정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 한예로 당장 집이 지어지는 - 듯 성급히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훌륭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지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것은 보통사람들도 모두 막연하나마 가지고 있던 固定觀念이기도 하였다. 또 한가지는 계획을 하건 설계를 하건간에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은 안된다는등의 편협한 발언도 서슴치않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가 과장되어 일본식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神社參拜가서 일본신사 앞에 꿇어앉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순수한 한국의 人力, 한국의 技術로 이것이 완성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단연 우세했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래 쬐이면 解放 당시 유치원도 안 다닌 世代니까 우리 나이 이하로 책임자를 물색하다가 김원이가 괜찮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이었다. 建立 推進委員會 안에는 企劃委員會가 있었는데 그 기획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사람이 관여하였다. 주로 역사학자,

“

기본계획 소위원회 5명은
 자신들의 일들을 많이 희생하면서
 중대하고 의미있는 이 일에 열심이었다.
 그사이 몇 번에 걸쳐 世界旅行을 하면서
 類似施設을 돌아보고 건립후의 문제,
 다른 유사시설과의 비교등의 자료수집을 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진품위주의 박물관식”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나 지금 돌아켜보면
 우리 주장은 완벽하게 옳은 것이다.

”



■ 독립기념관 현상설계 당선안(모형)

독립운동사 교수들이 주축이었고
 건축에 있어서는 나와 김중업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후 언젠가 김수근씨를 만났더니
 농담조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은
 안된다는데 어떻게 김중업씨는
 들어가 있느냐?”면서 “동경대학은
 안되고 요꼬하마고공은 괜찮단 말인가?”
 등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김중업씨는 “평생 建築을 한
 사람으로서 말년의 마지막 奉仕로
 獨立記念館 設計를 국민에게
 바치겠다”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빠뜨리지 않았다.
 “기획위원회 안에 김원씨는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이므로 둘이서라면 훌륭한
 作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일이 細分化되면서 분야별로
 기획위원회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획위원인 나와 김중업씨가 각각
 한분씩 더 推薦을 하기로 해서 내가
 윤승중씨를, 김중업씨가 김석철씨를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이
 일을 企劃하는데 적합한 분으로서
 윤승중씨를 추천했는데 반해서
 김중업씨는 김석철씨가 그를 도와
 기획위원회에서 설계를 하는데 한표를
 보태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김중업씨는 기획위원회에서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나와
 윤승중씨가 반대하고 김석철씨도 그의
 의견에 동조를 안하여 결국

기획위원회를 떠나게 되었다. 개인적인
 욕심이 成就되지 못해서 손을 떼면서
 “젊은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다.”
 “사무처장이 독주를 하고있다” 등의
 非難을 여기저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는 여러기관을 통해서 調査를 받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기획위원이 2명에서 4명 그리고
 다시 윤승중, 김석철, 김원 3명이
 되면서 그 Member가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되었다. 그 위에 조정
 오희영, 도시계획 권태준 두 분을
 보충하여 5명의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주로 독립기념관의 Program과
 Master Plan을 맡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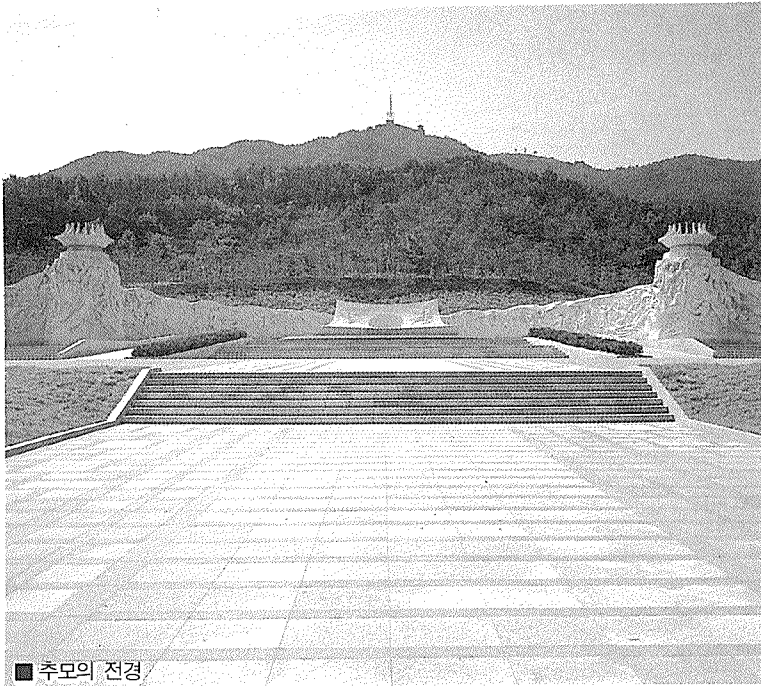
• PROGRAM작성

候補地가 정해지고나서 그 안에
 들어갈 施設문제,
 Space Program,
 Activity Program,
 大地活用문제, Feasibility등에
 관한 Program은 외부에서
 용역하기도 어렵고 우리들이
 위원신분으로 그것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딱딱했던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이 일을
 시키는데 用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 못했다기보다 부분적으로는
 자진해서 - 實費精算制로 보수지급을
 하기로 했다. 앞서말한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Lead를 實際作業은
 환경대학원 Team이 아파트를 빌어
 밤을 새워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장관 및
 대통령에 보고를 하였고, 이 일의
 대강과 진로를 확정했다. 3개월후에
 완성된 Program 보고서를 가지고
 公聽會를 거치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시키고, 다시 이사회를
 통과시키는등 짧은 시간동안 실무적인
 작업, 행정적인 작업등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기본계획 소위원회 5명은 자신들의
 일들을 많이 희생하면서 중대하고
 의미있는 이 일에 열심이었다. 그사이
 몇 번에 걸쳐 世界旅行을 하면서
 類似施設을 돌아보고 건립후의 문제,
 다른 유사시설과의 비교등의 자료수집을
 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진품위주의 박물관식”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나 지금 돌아켜보면 우리
 주장은 완벽하게 옳은 것이다.

• MASTER PLAN

Program만들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일한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 추모의 전경

그래서 Master Plan 역시 누구에게 用役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해서 내책임하에 광장식구들이 모두 差出되어서 예의 그 아파트에서 일하였다. 그 Master Plan은 2개월간 밤을 새워 일을 한 후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120만평 중에서 중심부 3~40만평만을 이용하여 거기에 아주 기하학적인 軸을 설정한 후 흑성산 정상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의 안이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하지 않느냐등의 쟁점이 있었으나 나로서는 確信을 가지고 밀고 나갔다.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엄격한 秩序, 어쩌면 대단히 기하학적인 질서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導入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못한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로 한국의 傳統的인 배치라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그런 것이었으나 지형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중심 軸이 강한 Master Plan을 만들어 중앙부를 計劃하고 동서의 두 계곡은 앞으로 후손을 위해 留保시켜 놓았다. 이 Master Plan에서 대체로 건물의 배치까지 확정을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앞에 이야기한 경직된 분위기 - 세상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만들어보자는등 - 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뿐이었다. Program과 Master Plan 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추진위원 이사회나 독립운동자단체와 부딪히는 쟁점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첫째 나는 우리 후손, 후대 어린이를 위해 施設面에서 아주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것을, 둘째 실제유물이 많지않기 때문에 複製도 불사한다. 세계 영상전시나 첨단과학의 방법을 총동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품을 전시 안하면 의미가 없다. 혹은 그렇게 안하면 폭파를 시켜버리겠다는등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그대로 進行이 되었다. 지금 완성된 記念館을 보면 당시의 기본적인 精神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살아있다. Master Plan은 후에 여러 장관을 거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修正이 되었으나 아주 기본적 설정은 내가 주동이 된 기본계획 소위원회의 훌륭한 作品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Master Plan이 일반에게 공개되던 날 MBC의 박은희기자가 젊은 건축가들이 관여된 것으로보아 독립기념관은 현대적인 건물이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해와서 또 한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분위기는 거대한 기와집 오로지 그것 뿐이었다.

“

지금 완성된 記念館을 보면 당시의 기본적인 精神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살아있다.

master plan은 후에 여러 장관을 거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修正이 되었으나 아주 기본적 설정은 내가 주동이 된 기본계획 소위원회의 훌륭한 作品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 현상설계

Master Plan 할때쯤 이진희 장관이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보니까 언제 Master Plan을 만들고, 현상설계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김원씨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設計까지 끝내자 용역계약을 빨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도 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기도 했다. 대개 선배들 의견은 반반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얼그리 고민하느냐,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뭘 주저하느냐, 인생에 機會는 한번오고 두번오는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해야한다. 당신의 實力으로 보아 그것을 못 할리는 없을테고, 당신이 한다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절반정도, 그 반대로 온 국민이 성금을 모으고 관심을 가진 것으로서 한 사람의 작품으로 남을 만한 여건이 아니다. 결국 이사람 저사람의 입김이 들어가고 국회의사당과 같은 이상한 건물이 되고, 작품도 못 만들고 육이나 먹고,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결국에 가서는 責任을 뒤집어쓸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업으로 성공적일 것

갈지도 않다. 그러니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이었다.

나는 후자 쪽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진희 장관한테 가서 내 의견을 다소 미화시켜 이야기했다. - 이 일은 온 국민의 誠金으로, 온 국민의 지나치게 큰 期待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바 한 개인이 무엇을 설계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온 국민의 衆智를 모은다는, 그리고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Open Competition (일반공개 현상)으로 광범하게 Idea를 모으는 것이 원칙이겠다고 하였다. 장관은 기쁘게 동의를 했으나 시간 부족등의 문제를 걱정했다. 나는 현상설계를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장관께 요구하여 쾌히 승낙도 받았다. 그때까지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실제로 해 볼 기회가 된 셈이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여러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현상설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이번 기회에 이를 완전히 개선하고자 했다. 현상설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 擧에 해결하는 현상설계 요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예를들어 그때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당선작가에게 實施設計를 줄 수도 있다”를 “실시설계를 준다”라고 못을 박는 일이 시작되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중 또하나로 심사위원 명단 事前公開문제인데, “심사위원 명단을 추후에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사계의 권위자로 한다”가 아니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그 현상설계가 의도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 외에 시간, 상금등의 문제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기위해 2단계의 공개현상 - 1차는 누구나 부담없이 Idea를 내도록 하였고, 1차심사를 거쳐 2차에 指名權을 받은 사람은 제작실비를 받고 더 자세한 Design Development를 시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심사의 전과정을 公開한다는 것이었다.

이런등의 것은 그전까지 前例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일들이었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시원시원한 현상설계 모집요강이 만들어져서 2개월간 작품을 접수했다. 그 결과는 내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 그것은 현상설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국 건축계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중에는 그 이후 그것이 계기와 전례가 되어 현상설계 “당선자에게 실시설계 줄 수도 있다”는 말은 사라졌다.

“

대한민국 건축계의 여러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현상설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이번 기회에 이를 완전히 개선하고자 했다. 현상설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 擧에 해결하는 현상설계 요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예를들어 그때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당선작가에게 實施設計를 줄 수도 있다”를 “실시설계를 준다”라고 못을 박는 일이 시작되었다.

”

“당선작가에게 실시설계를 준다”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심사과정의 公開, 기록에 남기는 문제등도 하나의 전례가 되어 그 이후 계속되고 있다. 단지 심사위원 사전공개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현상설계 결과는 나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런대로 당선작이 결정되었다. 당선작이 결정되는 과정또한 복잡하였지만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을 뽑을 때는 주어진 Program과 Master Plan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 생각하고 뽑은 것이었다. 지금 된 결과는 사실은 당시와 많이 다른 것이 되었는데 나 자신 아직도 지금 것이

그것보다 훌륭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 基本設計

현상설계 당선자가 김기웅씨로 결정된 다음 공교롭게도 나와 그가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 말이 많았던 것 같다. 나는 이미 그때는 投書, 情을 너무 많이 받아 그 문제에 대해서 “김원이가 독주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등의 일을 여러번 당하고, 조사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나 자신도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일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 기본계획 소위원회도 가끔 모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지 않느냐” “所信것 믿고 나가자”는 다짐을 여러번 했다.

그 당시로서는 응모작품들이 전반적으로 充實하지 못했지만 그 기본설계 작품은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그후 전개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입김이 첨가되어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기본설계가 확정될 당시에는 기본계획 소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된 기본설계 안에 대해 실망을 하였고, 심지어는 설계자의 나약함을 비난할 정도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나마 밝혀두고 싶다.

• 實施設計와 起工, 竣工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서 기본설계 소위원회라는 것이 이 Project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어야겠다.

그당시까지 사회에서는 “독립기념관 5인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소신것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기본설계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말하자면 Scale의 문제 - 동양최대라는, 천안문보다 더 높다는 - 등이 擡頭하면서 기본계획 소위원회 Member 자신들이 意慾이 상실하게 되었고, 또 설계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자로 하여금

여러가지 면에서 자유를 주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실시설계의 진행과정이나 시공·감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Control Tower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소위원회와 설계 진행과정이 멀어지게 된 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 전체 진행에 크게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다.

• 화재사건

우여곡절 끝에 1984년 설계를 마치고 1986년 8월 15일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기본계획 소위원회는 그 의미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가지 형태로 諮問에 응하고, 또 나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야의 위원을 겸하며 계속 관여를 해왔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인 1986년 8월 15일 바로 개관을 앞두고 화재사건이 터졌다.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復舊하고 다시 展示를 하느라고 일 년이나 閉館이 늦어지고, 또 예산상 100억 이상을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무처장이하 모든 Step들이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장관까지 갈리는 문제까지 생겼는데 그당시 내가 느낀 것은 이 일은 어느 면에서 볼 때 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 우리나라 Standard 로서는 - 사무처나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이나 그래도 열심히도 했고, 상당히 인정받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화재사건이 일어나니까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入禮制 개선등 이를 계기로 여러가지 반성의 기회가 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였다.

• 竣工 · 管理運營

집이 완성된 후 나는 기본계획 소위원회 대신 기획운영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 후의 운영문제에 관해

“

지금도 다소 걱정되는 것은 개관 후에 이것이 순수하게 자체운영이 되고, 그 남은 이익으로 앞으로 Master Plan에 제시되었던 여러가지 남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위락시설 위주의 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서 우리 후대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온 사람이 또와서 감격을 되새기고 하여 만들어진 수입으로 자체운영이 되느냐가 지금도 걱정이다.

거기다 설당가상으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물규모도 커지고, 관리운영 면에서도 방대하게 계획이 바뀐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

박종국 전 사무처장과 많은 계획을 세웠다. 지금도 다소 걱정되는 것은 개관 후에 이것이 순수하게 자체운영이 되고, 그 남은 이익으로 앞으로 Master Plan에 제시되었던 여러가지 남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위락시설 위주의 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서 우리 후대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온 사람이 또와서 감격을 되새기고 하여 만들어진 수입으로 자체운영이 되느냐가 지금도 걱정이다. 거기다 설당가상으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물규모도 커지고, 관리운영 면에서도 방대하게 계획이 바뀐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기억으로 1986년 8월 15일 이전에 내가 제시한 것 중 하나가 개관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주 딱딱한 광복절 41주년 기념식을 겸한 독립기념관 개관식은 정말 멋드러진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보고자 했다. 딱딱한 국민의례, 식사, 치사, 기념사 등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고, 지루한

기억만 남고, 3개의 중계방송이 모두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는 개관식이 아닌 정말 하나의 감격적인 드라마를 엮어보고자 그 Program을 만들어서 제출했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文化的인 후진성, 폐쇄성, 보수성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한 적이 있다.

• 독립기념관의 感懷

나는 거의 5년동안 이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음부터 개관까지 열심히 도왔다. 지금와서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은 내가 그 Master Plan을 했다는 기억밖에 없다. 다행히도 흑성산 정상에 하나의 기념물을 설계할 기회가 주어져 송신탑을 겸한 Monument를 만든 것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 그것이 민족의 念願을 상징하는 솟대, 장승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나로서는 큰 보람이다. 하나의 커다란 Complex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의 候補地 선정부터 마지막 완공까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건축계의 激變하는 시기에 하나의 행운이었다는 즐거운 감회에 젖게되는 바이다.